

# 국립식량과학원 전시 재배지 '개방'

농진청, 식량작물 우수 품종 · 연구성과 견학 프로그램 운영... 벼 87품종 · 밭작물 91품종 전시 · 식량작물 홍보관 운영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내 육성 식량작물 품종과 우수 연구성과를 알리기 위해 7월부터 11월까지 식량작물 우수 품종과 연구성과를 살펴볼 수 있는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 프로그램에서는 국립식량과학원(전북 완주군)에 조성된 전시 재배지를 개방한다.

전시 재배지는 무복토 이앙과 무논 접뿌림(무논잡파) 같은 재배유형별로 6곳이 조성돼 있다. 품종별로는 신품종(특수미 3, 밥쌀용 6) 9종을 비롯해 사대별 대표 품종 20종, 특수미 22종, 밥쌀용 36종 등 모두 87품종이 전시되어 있다.

밭 품종 재배지에는 참깨, 들깨, 두류(豆類) 등 14개 작물 91품종을 심어 다양한 밭작물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인과 농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국립식량과학원 누리집(www.nrcs.go.kr)에서 견학 신청을 하면, 방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육성 식량작물 품종과 우수 연구성과를 알리기 위해 7월부터 11월까지 식량작물 우수 품종과 연구성과를 살펴볼 수 있는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진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견학프로그램.

방문객은 벼, 밭작물을 중심으로 재배 기술과 품종 특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재배지를 관찰하고, 식량작물 홍보관도 둘러볼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전시 재배지를 다년간 농업인과 작목반·연구회 등 농업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응답자(86.2%)가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식량작물의 재배 특성과 생육 현황을 비교하며, 지역에 맞는 품종 설명을 자세히 들을 수 있어 신품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영농현장에서 겪는 병해충 방제나 잡초 제거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얻었다는 평도 있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정명강 과장은 "식량작물 신품종과 신기술 등 다양한 연구성과가 농업 현장에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전시 재배지 운영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김영일 전북농협 본부장 '일회용품 ZERO' 챌린지 동참 포스터.

## "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 줄이자"

김영일 전북농협 본부장, 일회용품 ZERO 챌린지 동참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17일 생활속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운동인 '일회용품 ZERO'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주관으로 지난 2월부터 시작한 '일회용품 ZERO' 챌린지는 공공기관, 기업, 단체, 국민들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범국민 실천운동이다.

김영일 본부장은 "일회용품 ZERO 챌린지"가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전북농협 임직원 모두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나갈 것을 약

속했다.

한편, 전북농협은 정부의 2050 탄소 중립에 동참하기 위해 '제로형 아이스팩 수거 캠페인', 'NH교실 숲 조성', '히친 그루 나무심기 캠페인' 등 탄소저감 범농협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김영일 본부장은 뜻 깊은 캠페인에 자신을 기록한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일회용품 ZERO' 챌린지' 다음 참여자로 김성모 KBS 전주방송총국장과 김영환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장을 기록했다. /김옥기 기자

# 전북 6월 무역수지 흑자 36.2% 증가... 수출 · 입 동반 감소 여파

전주세관 발표, 무역수지 흑자 1억5400만 달러 기록

올해 6월 전북지역 수출·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주세관이 발표한 2023년 6월 전북지역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국내 지난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5% 감소한 총 6억2100만 달러, 수입은 17.4% 감소한 4억6700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 동월(1억1300만 달러) 대비 36.2% 증가한 1억5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기계류(9.1%)

와 수송장비(0.1%)는 증가했으나 철강제품(23.1%)·화학품(22.4%)·전자제품(11.7%)은 모두 감소했다.

또 수입은 곡물(4.7%)은 증가한 대신 경공업원료(45.1%)·비철금속(31.8%)·기계류(24.4%)·화학품(15.5%)은 하락했다.

이와 함께 국가별로는 수출은 중남미(10.0%)에서 증가세를 보였으나 EU(35.0%)·중국(12.2%)·동남아(6.2%)·미국(2.4%)은 각각 줄었다.

수입의 경우 미국(34.0%)에서 가장 크게 감소했으며, 그 뒤를 이어 비록한 동남아(24.9%)·일본(14.7%)·중국(11.9%)·EU(7.8%) 순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전주세관 측은 전했다. /뉴스스



## 영농철 합동 농촌 일손돕기 '구슬땀'

NH농협 남원시지부 · 남원농협 · LX공사 남원지사

NH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오영석)와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 LX한국국토정보공사 남원지사(진성만 지사장)는 지난 12일, 남원시 산동면 포도 재배농가에서 일손돕기 및 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일손돕기에는 3개 기관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 폭염과 장마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고령농가와 취약농가에 포도 수지르기 및 가지치기와 환경정리 등의 작업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한편, 시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3개 기관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농촌에서 영농지원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



## 제19회 전북은행장기 배드민턴대회 성료

국내 배드민턴클럽 102개 · 620팀 · 1240여명 선수 참가

IF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주최하고, 전라북도배드민턴협회(회장 심용현)가 주관하는 제19회 전북은행장기 배드민턴대회가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렸다.

올해 19번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전북도 배드민턴협회에 가입된 102개 클

럽에서 620팀 1,240여명의 선수들이 출전한 가운데, 등급 및 연령대별로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등 각 종목이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행토은행으로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지역과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농업스타트업단지 입주 청년농업인 모집

농어촌공사, 내달 16일까지 · 총 14개 농가 임대 모집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농업스타트업단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농업스타트업단지' 대상자는 집단화된 유흥농지, 국·공유지 등을 공사에서 매입해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도로공사,

우수공급시설, 배수시설, 등의 기반을 정비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장기임대(10~30년)하거나 장기임대 후 매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전북 김제시와 경북 상주시이며 선발인원은 총 14명, 청년농 1명에게 0.5ha 이내로 농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현재 소유농지가 없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과정 수료자,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경력 2년 이상 또는 스마트팜 영농(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자이다.

지원내용 및 사업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옥기 기자

